쟤가 왕따를 자주 당하는데...

그거는...

생긴 거 때문이어서

얼굴 보세요

아까 예쁘다고 하셨잖아요

저 미안하다!

[견종백과 / 프렌치 불독편]

**프렌치 불독 소개**

안녕하세요 훈련사 강형욱입니다

오늘 견종백과에 나온 손님은

[머루 / 프렌치 불독 / 3세] 프렌치 불독입니다

드디어 프렌치 불독이 나왔어요

제가 저 매년 확인하는 게 있어요

[AKC: 미국에서 설립된 애견 협회] AKC 아메리칸 켄넬 클럽이라고 하는데

거기에서 30년... 30년 정도를

[1991년부터 1위를 고수했던 래브라도 리트리버]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인기 순위 1위였었대요

그런데 30년 만에 프렌치 불독이

[미국 내 인기 순위 1위] 미국에서 인기 순위 1위가 되었대요

[그만큼 매력적인 오늘의 주인공] 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

**프렌치 불독의 생김새?**

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

먼저

머리가 커요

[우람한 머리 크기를 자랑] 우람해요

커요

그리고 이 귀가 특징인데

박쥐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박쥐 귀가 있고요

어떤 분들은

'귀가 선 불독 아니야?'

라고 생각될 정도로 불독하고 흡사합니다

[잉글리쉬 불독 / 프렌치 불독] 실제로 불독에서 귀를 세우는 애하고 많이 차이가 없어요

그리고 또 앞다리가 특징인데

앞다리가 살짝 불독의 그 느낌이 남아 있어요

[쩍 벌어진 가슴에 맞춰 벌어진 앞다리]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다리가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

그게 이 친구들의 특징입니다

**프렌치 불독의 유래?**

요즘에는 또 미니들이 좀 생기더라고요

미니가 또 있어요 미니

좀 조그마한 친구들이 있는데

우리가 조금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

이름에 Bull

Bull 자가 들어간 친구들은

불 베이팅(Bull-bating)이라고 해서

[19세기 초까지 성행했던 개와 소를 싸움 붙이는 오락 경기] 황소랑 싸웠던 친구들이거든요

[1835년 동물 학대범 통과로 금지하게 됨] 그런데 그게 빅토리아 여왕께서 18세기인가 이걸 금지시켰어요

금지시키면서 불독들이

싸우는 투견의 역할이 아니라

반려견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개량이 됐대요

그때 미니 불독이 나왔답니다

그 미니 불독이 프렌치 불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

어떤 사람은 '퍼그하고 불독을 믹스했다'라고도 하고요

어떤 사람들은 '테리어류와 불독을 믹스했다'라고 하는데

이거는 누가 봤어요?

모르죠

저는 어떤 걸 믿냐면

'테리어와 불독을 믹스하지 않았을까' 라고 생각이 들어요

이리 오세요

[아무튼 귀여움]

**프렌치 불독의 성격?**

대체로 요 친구들이 엄청 사교적이에요

어마어마하게 사교적이거든요

그런데 안타깝게도

몇몇 프렌치 불독들한테는

공격적인 성향들을 좀 갖고 있어요

대부분 불독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

지금 현재 잉글리쉬 불독도 공격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착한데

아직도 몇몇 친구들한테는

그 몇 세기 전에 했던 그 불 베이팅의

흔적이 남아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고요

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

그래서 마구 만지거나

[(감정 표현이 잘 안 보임)] 또 얘가 표정이 없어서

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

굉장히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

이게 진돗개나 이런 친구들은 입술이 씰룩거리는 게 잘 보여요

근데 쟤는 입술이 잘 안 보여요...

그래서 이 친구의 기분을 모르고 무턱대고 만지거나

잘못된 번식으로 이 친구의 성격이

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

**프렌치 불독의 특징 | 수영을 못함**

얘가 의외로 민첩해요

[민첩하고 운동 신경도 좋은 편] 민첩하고 운동 신경도 되게 좋아요

근데 단점이 하나

단점이라기보다

못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

수영을 못해요

이 딱 놓으면

[(앞으로부터 꼬르륵해서 사라진다는 뜻)] 앞으로부터

물가에 잘못 뒀다가 큰일 나요

우리 저 머루는 수영 좀 합니까?

처음에는 엄청 못 했는데

요즘에는 쪼끔 해요

해요? 떠요?

오 그 츠

신기하네

[(머루 수영 쪼끔 하는 중.mp4)] 머루 머루

보통 얘는 물하고 싸우거든요

[물 싫어잇]

싸우다 보면 물속으로 가라앉고...

[머루가 특별한 케이스]

**프렌치 불독의 특징 | 똥꼬 스키**

그리고 또 하나

이 친구들이 똥꼬 스키의 달인이에요

똥꼬를 바닥에 대서 긁는 거뿐만이 아니라

이렇게 서서 이렇게 춤을 출 정도로

[(머루 똥꼬 스키 영상.mp4)] 이거는 굉장히 많은 프렌치 불독들의 특징입니다

**프렌치 불독의 특징 | 털이 덜 빠짐**

그리고 요 친구 털은

보통 요 친구는 이렇게 짧아요

이게 털이 빠지긴 하거든요? 빠지긴 하는데

[대체로 안 빠지는 편에 속함] 대체로 많이 안 빠집니다

푸들 키우시는 분들이나 비숑 키우시는 분들은

'에이 많이 빠지던데요'라고 할 수 있는데

평균적으로 다른 견종에 비해서는

털이 좀 덜 빠지고요

**프렌치 불독의 특징 | 침을 덜 흘림**

불독 중에서도 침을 제일 덜 흘리는 불독들이에요

잉글리쉬 불독은 손에 행주를 계속 달고 살아야 해요

계속 닦아줘

그리고 여기가 맨날 젖어 있어

근데 얘는

[쓰윽]

젖었네...

이 정도면 먹었으니까

이거 먹었으니까

먹었으니까 할 수 없지

**프렌치 불독은 꼬리가 없다?**

이 친구 꼬리를 보면

'잘랐나?'라고 생각하시는데

(꼬리를) 잘랐나요?

아니요 안 잘랐어요

아 그죠

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

그냥 없어요

없는 친구가 있고

꺾여 있는 친구가 있어요

꺾였는데 그게 똥꼬 쪽으로 꺾이잖아요?

그러면 잘라줘야 해요

안 그러면은 계속 살을 누르고 있는 거야

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?

그 뼈가 딱딱해서 똥꼬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

그래서 할 수 없이 꼬리를 자르는 경우들이 있는 친구들입니다

**프렌치 불독의 출산 | 제왕절개**

그리고 또 그 출산도

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마리에 한 마리만

자연적으로 낳고

대부분 제왕절개를 한다고 들었거든요?

우리 사람도 산부인과 가면

아기의 머리 크기를 보면서

[제왕절개 or 자연분만]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

자연 분만도 가능하겠습니다

이걸 판단하잖아요

근데 얘네들은

머리가 너무 커가지고

골반에서 못 빠져나온대요

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

**프렌치 불독의 질병?**

얘네 알레르기 있죠?

맞아x3

얘네 알레르기가

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이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

잉글리쉬 불독만큼은 아닌데

프렌치 불독도 피부에 알레르기가

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

또 하나는 평생 스트레스가 있어요

[주둥이가 짧은 단두종이기에 생기는 질병] 전통적으로 주둥이가 짧은 아주 짧은 주둥이를 갖고 있고요

그래서 호흡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

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

또 뭐 스트레스받겠죠?

조금 더 나이 먹으면 여기도 좀 늘어진대요

저 비강인가?

호흡이 좀 불편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

**프렌치 불독 키울 때 주의할 점?**

그래서 저는 여름에 프렌치 불독 산책하지 말라고 합니다

[(습한 여름 산책은 머루를 힘들게 해.jpg)] 우리나라 습도가 높잖아요

이런 날은 그냥 나가지 마세요

나가서 오줌만 싸고 들어오세요

나갈 거면 수영장 가서

수영

도 못하네...

[그냥 여름엔 산책 금지] 그냥 여름엔 나가지 마세요

요즘에 쇼핑몰에...

스타필드 가 스타필드

안고

빨리 차에 타서

에어컨 빡 틀고

스타필드 주차장 가서

내려가지고 스타필드에서

거기서 산책해

알았지? 거기 오줌 싸는 데도 있고 하니까

**프렌치 불독이 왕따를 자주 당한다?**

아 저 궁금한 점

네

쟤가 왕따를 자주 당하는데

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너무 좀...

진짜 불독들이 왕따를 많이 당해요

여기 가도 놀림 받아

저기 가도 놀림 받아

[(투명 강아지가 된 머루.mp4)] 거의 투명 인간처럼 강아지들이...

그거는...

생긴 거 때문이어서

강아지도 생긴 거 보고 차별해요?

차별합니다

얼굴 보세요

아까 예쁘다고 하셨잖아요

그건 인간적으로 예쁜 거죠

동물적으로는...

[참나]

저 미안하다!

미안하다

[(왕따 극복 방법)] 그런 애들끼리 모여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

[결론: 프렌치 불독 모임 강추] 프렌치 불독끼리 만나면 됩니다

**프렌치 불독 키우는 난이도?**

키우는 난이도?

[3점 / 10점] 얘는 한 3점 정도 됩니다

[(퍼그 난이도: 1.5점)] 약간 뭐 퍼그보다는 조금 더 힘들 순 있는데

내가 개를 좀 키워 봤다

푸들이든 뭐 말티즈든 누구든 키워 봤다

그럼 너무 재미있게 키울 수 있으실 거예요

엄살 안 부리고

많이도 안 짖고

시끄럽게도 안 하고

그리고 잡는 맛도 있고

[귀여워]

**To. 프렌치 불독 키우는 보호자**

프렌치 불독 키우시는 분들은

[(머리 아가짱 시절.jpg)] 나중에 혹시나 두 번째 강아지를 생각할 때는

[(머리 3살 생일 때.jpg)] 프렌치 불독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

이 매력이 좀 대단하거든요

분명히 뭐 아기자기한 맛은 없습니다

볼링공처럼 여기 튀었다가 저기 튀었다가

이 또 맹한 맛이 있어요

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

[뭔]

[생각]

[허냐]

[밥이나 줘유]

**프렌치 불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?**

프렌치 불독은 견종 계의 MZ다

[(형욱이 생각하는 MZ 특)] 예쁘고요

생각도 자기주장도 강하고요

총총 튀고요

그다음에 또

가끔 싸가지도 부리고요